-기도-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나머지 삶의 기회를 주신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이 시간들이 하나님앞에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계수양회가 3번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들도 주님의 은혜가운데 인도될수있도록 해 주시고, 끝날때까지 끝난것이 아니오니 저희들 함께 마음모아 끝까지 기도할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행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 합니다.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말씀의 기쁨이 되는 귀한 한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0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오늘은 죽음과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도 참 궁금합니다.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이렇게 궁금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여러번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임사체험 이라고 하죠, 직접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4명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신문이나, 책,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 제가 임사체험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꼭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해보고 싶습니까?
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보장만 된다면 꼭 임사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에 너머에 있는 진정한 세계.

우리는 이 현실의 세계가 진정한 세계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지만 이것은 잠시 올라갔다 내려오는 무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대 .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곳이 진짜라는 것이죠. 우리는 70,80년 살고 길게 살아도 100년을 못삽니다.

그기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을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간 그곳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진짜의 세계, 잠시라도 맛을 보고 싶을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세계 육신의 세계 눈의 세계 더 이상 집착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마음을 더 빼앗기지 않도록 그런 계기가 저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 그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이유가 있죠. 죽음이 인생들을 꽁꽁 묶어놓을수 있는 이유가 여러개 있습니다.

솔직히 죽음이라는 것은 참 낯선 것이죠.

거대한 바다속 드넓은 바다속에 서서히 한발한발씩 옮겨가면서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본적이 있습니까?

발목까지 찼던게 무릎그리고 허벅지 허리 가슴까지 이 차본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바다속에 들어가면서..

그때 점점 물이 차오르면서 저는 여기까지 가본적은 있는데, 참 그 낯설고도 두려운 느낌.

무엇인가 완전히 내 몸을 꽉 휘어잡고 있는 듯한 그 느낌.

그리고 이게 점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점점 모든걸 휘어잡게 되겠죠.

낯선 그런 느낌. 그런 느낌과, 죽음은 흡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참 낯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이 인생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저 빛나는 태양, 뜨거운 태양, 작렬하는 저 태양, 또는 매미들의 소리, 나를 행복하게 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 , 함께 기뻐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는 못본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참 슬프게 합니다. 그리고 두렵게 하죠. 더 두려운 것은요,

아니 무시무시할 정도로 화가나기도하고 더 두려운 것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계속 있어 자기길을 간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데,버스는 그날 똑같이 운행되고 지하철도 그날 똑같이 운행되고 세상은 꿈적도 않고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꿈적도 하지 않느냐는 거죠.

안타깝지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아랑곳하지도 않고 세상을 그냥 흘러갑니다. 내가 사라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그런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게 되면 그런 허무감과 허탈감 그리고 그 화를 보게 됩니다, 이야기 하다보면.

나는 이렇게 병실에서 옷을 입고 죽어가고 있는데 저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라고,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왜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할때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데 왜 꿈쩍도하지 않냐고 세상은. 그게 무척 두렵고 화가 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적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라지면 이 세상이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사라지는데 저 태양이 무슨 의미가 있을것이며, 내 아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내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라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참 두렵게 하는게 죽음이 맞습니다. 더 죽음이 두렵게 하는것은 환원 불가성입니다.

되돌릴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갈수가 없다느느 거죠.

죽었는데 살아서 다시 살수가 없다ㄴ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다시 죽어요.

진짜 죽음을 만나게 되겠죠.

진짜 죽었을 때는 다시 돌아올수 없다는 거예요. 환원 불가성, 비 가역성 그렇게 얘기 합니다.

죽음이 가장 우리에게 공포 패닉상태로 몰고가는 것은 다시는 되돌릴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무서운 일이기도 하죠. 녹음은 거기 되고 있죠. 여기방송이 문제인 거죠.

자꾸 끊어져서 좀 걱정은 되네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 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인생. 히브리서 2장에 있죠.

죽기를 무서워 해서 일생에 종노릇하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운 겁니다.

죽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죽음 위의 세계가 분명히 보장되어 있지만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은 사실이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짐이지 않습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짐, 단절, 바로 그 현상이 벌어지는게 바로 죽음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이후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사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신분을 가르고 있는 분기점이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게 되죠.

그러나 세상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 사망이 왕노릇 했다라고. 세상 사람들 위해 사망이 왕노릇 했다고. 그러므로 종들이죠.

사망의 종들. 죽음의 종들이되어,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수가 있고, 죽음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우리들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또한 있는 거라 믿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최초의 언급이 어디에 되어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최초 언급. 어디에 있을까요. 네 ? 틀려도 좋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이것을 따먹는날 정령 죽으리라. 하지만 그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예요.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살았자나요,

그것은 생물학적 죽음, 육신의 죽음 육적인 죽음을 뜻하는게 아닙니다. 영적 죽음이죠.

관계의 단절이죠. 대화의 끊어짐이죠. 교류가 사라지는 것이죠.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였죠. 그렇다면 육적 죽음을 말하는최초 언급은 어디있을까요?

네? 네 가인가 아벨, 예. 실제 죽음의 사건이 벌어진거죠. 실제 죽었어요.

생물학적 죽음으로 육신의 죽음이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3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3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게 바로성경에서 나오는 육신의 죽음, 육적인 죽음의 최초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아의 홍수사건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사건 바로 앞 사건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를 만나게 됩니다.

900년을 살았어도 죽었더라. 900년을 넘게 살았어도 죽었더라 결국은 죽었더라.

그러므로 1000년을 넘게 산다해도 너는 죽을 것이며 만년을 살아도 너는죽을 것이다.

죽음의 원리가 인간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이 창세기 5장에서 드러납니다.

죽었더라 ,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은 다르죠.

마태복음 1장 그리스도의 족보속에는 죽었더라는 얘기가 없어요.

같은 족보인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낳았더라 낳았더라 낳았더라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더라.

진정한 생명은 바로 낳는겁니다.

그리고 생명은 그 생명을 또 낳게 되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생명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은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죽음을 넘어선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것 그것처럼 기쁘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인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지배하는 자가 있고, 죽음을 다룰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될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는 인생은 자유를 원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해줄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는 그분 그 자체로

서 우리의 구원 자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맛볼, 공부하게 될 이 사건이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에의 승리자, 죽음의 명령자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이라는걸 넘어갈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시도하죠.

자살을 항상 생각은 하면서 죽지는 못하는 사람을 사람은 이 자살하는 사람을 참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용기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는 용기를 부렸는데 , 삶에대해서는 용기를 부린게 아니예요.

비겁자입니다. 사는 것은 두렵고 사는 것은 정말로 자기가 이겨낼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데, 혹자는 그런자를 용기있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어있는 것보다 죽는 거보다 더 어려워요.

사는 것이 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수가 없어요.

죽음을 넘어설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우리 존재들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길,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죽음을 넘어서는 길.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인간 역사상 죽음을 보지 못한 아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 사람이 두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들은 죽음을 통과를 안했어요.

죽음을 건너뛰어 버린 겁니다. 죽음을 건너뛰어버린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죽음 자체를 맛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통과한 것이 아니라 넘어가 버린 겁니다. 넘어가 버린것. 축복이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넘어가버릴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것, 참으로 큰 축복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도 영원히 삽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우리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얻었고 그 소망이 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의 모든 것을 있게 한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였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속에 살아가죠.

죽음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고, 죽음이 없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약에 인간 역사에서 죽음을 맛보고 또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 까요?

열왕기상에 나와있죠. 사렙다 과부의 아들/

그런것은 조금 적어놔보세요. 구약 인물 중에 죽음을 맛봤지만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열왕기상 17장에 사렙다 과부의 아들입니다.

엘리야에 의해서 첫 번째 살아난 사람잊죠.

이 사람은 죽음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넵여인의 아들입니다.

이번에는 그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됐던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열왕기하 13장에 그 엘리사의 뼈에 닿아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 바로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3번 죽음을 맛보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산 사람들이고

이 세사람은 죽음을 통과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요 다섯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죽음을 아예 맛보지 않고 죽음을 통과한 2사람 , 그리고 죽음을 맛본 다음에 살아난 사람 세사람 이렇게 해서 다섯 사람이 구약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역시 죽음을 맛보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몇 명일 까요?

모두 몇 명일까요?

예 야이로의 딸, 자 우리는 신약에서 모두 다시 죽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모두 다섯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유두고도 있죠. 예 . 그리고 도르가 가 있죠. 베드로에의해서 살아났던 사도행전 9장의 도르가.

사도행전 20장의 유두고, 유두고 유두고 였어요.

이렇게 두사람과 예수님이 살렸던 세사람이 있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주님께서 달리다굼 하고 일으켜 세웠죠.

아주 어린 아입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소녀였죠. 작은 소녀. 하나님이 소녀를 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소년이였죠. 소년은 죽은지가 얼마안됬어요. 청년은 죽어서 관속에 들어갔어

요.

자 소년보다 더 많이 산 사람이죠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을 살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롭니다.

이 사람은 아예 죽어서 관을 통과하고 굴 속에 들어갔어요.

썩어 냄세가 나나이다. 나흘이 지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또 살렸어요.

소녀를 살렸죠. 방금 죽은 소녀를 살렸어요, 더 오래 죽은 관 속에 청년을 살렸어요.

더더 오래 죽어서 썩어서 문드러져 냄세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모든 종류의 사람을 살린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영적인 의미가 또한 숨겨있습니다.

그렇게 세사람을 살렸죠.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서 도르가.

20장에서 바울이 바로 유두고를 살리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에서 모두 다섯 사람이 삽니다.

구약에서 다섯사람 신약에서 다섯사람 물론 구약은 2명 3명으로 구분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건너 뛰어 버린 사람 2사람 그리고 세사람, (손이 이상하네 .)

이 세사람은 죽음을 맛봤지만 다시 살아난 사람. u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통과해서 모두 10사람

작게는 8사람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임사 체험자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분명히 그들은 죽음에 임했고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놓아야 할게 있어요.

그들은 부활한게 아닙니다.부활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서 부활이라는 것과 소생이라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꼭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분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지금까지 인간 역사상 딱 한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은예수님께만 해당됩니다. .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사는 것이 부활이예요.

하지만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영원히 살지 못했다는 거죠 이 육신이 .

그러므로 그러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생이라 그래요 . 소생. 소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났는데 다시 죽는 다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부활, 이것에 견주해 본다면 그들은 진짜 부활한건 아닙니다.

소생 다시산것 뿐이예요. 그리고 다시 죽었어요.

오직 예수님 만이 영원히 영원히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주님께만 해당되요.

그런데 그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는 겁니다.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살것을.

고린도 전서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군가가 물을 거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냐, 그리고 어떠한 몸이 되는 거냐 라고 묻니다.

그리고 그 설명들이 36절부터 이어지죠. 씨앗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참 멋진 비윱니다. 여러분. 씨앗은 꽃이 되는 것을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꽃이 되는 것을 씨앗이 염려하는 모습을 봤습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그 형상속에이미 심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부활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심어져 있는 거예요.

애벌레는 나비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씨앗은 꽃과 열매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장래의 형채가 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예요

여러분 씨앗을 유심히 보고 아무리 짤라봐도, 또 짤라보고 또 짤라봐도 그 속에 열매가 들어있진 않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각종 씨앗을 짤라 보았죠.

초등학교때 다 짤라봤어요, 교육과정에 다 나와요.

가로로도 짤라보고 세로로도 짤라보고 잘게다 짤라봐도 그 어디에도 열매는 없어요.

사과는 안들어있단 말입니다.

배는 안들어 있어요.

그런데 배가 열려요.

수박씨에 수박이 들어있자나요. 그런데 안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그 씨앗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있자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아주 당혹감을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못봐서 믿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할꺼예요.

그러나 그들의 입은 곧바로 닫혀지게 될겁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저는 이따금 상담하다가 제 상담 자리에는 각설탕이있어요

각설탕 아시죠. 그 각설탕 하나를 가지고,
가져다가 실험을 합니다.

매직 마술을 보여주겠다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고

눈 크게 뜨고 보시라고. 그리고 따뜻한물 받아다가 투명의 컵 속에 각 설탕을 집어너요.

그리고 녹여버립니다. 물론 녹이기 전에 각설탕을 분명히 자기 손으로 만지게 먼저 해줘요.

그리고 녹여버립니다. 짠.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삶속에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우리 설탕을 풀어서 먹습니다.

방금 눈으로 만지고 손으로 만지고 형체를 분명하게 만졌던 그 설탕어디로 간겁니까.

조금만 공부한 사람은 알죠 물분자 사이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분자를 본적이 있습니까, 설탕 분자를 본적이 있습니까
방금 눈에 보였던 설탕은 어디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꺼예요

너는 너의 가슴속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보였길래 사랑했느냐.

네 가슴속에서 뿜어져 나왔던 그 용기와 도전은 도대체 어떤 형태의 물질이기에 너를 이렇게 살게 했느냐.

수많은 질문들 앞에 서야 될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입을 잡고 지옥으로 갈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교육시키고 계십니다.

그앞에서 핑계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아서 못믿었다. 결코 핑계될수 없을 겁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어요 우리 속에

부활이 우리 속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보시면 15장 42절

앞의 내용까지 41절까지 쭉 설명하시더니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같을 것이다.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이 나올 것이다.

참 놀라운 우리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51절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거라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이. 여러분 우리는 썩을 거예요. 이 썩을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폐해 집니다.

하지만 이 겉사람 마저도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입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압고 싶죠. 안 입고 싶으세요?

이 몸이 좋습니까 저는 솔직히 싫은데...

수양회에서 몇일 못자면 골골골 거리는 육신. 이거 벗어버리고 저 우주 끝에도 가보고

달에도 가보고 , 하나님의 천성 속에 살아가며 천년왕국 때는 이 지구상 여기 저기 구경도 다니고.

오늘은 여기서 묵었다 가야지 하고놀다가 가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이 몸을 벗어버리고 진정 부활의 몸을 입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소망이 크실 겁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쁘고 만족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복음 11장 보면, 오늘의 조연이 나오죠. 나사롭니다.

나사로는 주연이 아니예요. 조연일 뿐입니다. 이 사건 요한복음 11장의 주인공은 주연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조연은 나사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살아난 나사로가 주제가 아니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주제가 되는 거죠.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 이사람의 출신 성분 가족 관계가 나와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다루는것.

요한복음 11장이 유일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 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낸 대목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 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요한 복음 10장에 보면, 10장 24절에 보면, 10장 24절 잠깐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케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자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자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어늘

라고 얘기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십자가에서 했고 그다음에 11장이예요.

요한 복음만 11 장이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한다 그랬죠

그리고 10장에서는 바로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얘기 하셨고 11장 사건이예요

그러므로 11장의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맥락속에서 11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11장 1절에 보면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 여러분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참 감사함을 발견할수 있어요

이 베다니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촌 베다니라고 되있어요.

그죠. 두 사람만 살았습니까? 우리는 누구누구의 집 그렇게 말하죠

그럼 그사람 집이예요 다른 사람 집이 될수는 없죠.

그런데 참 작은 기록입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비록 작은 기록이지만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그 베다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촌 베다니.

그들을 특별히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분의 자녀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들의 집 , 그들의 촌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대목에서도 참 이렇게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 나같이 작은자 우리같이 작은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누구누구의 집, 누구누구의 촌락, 이라고 기억하시는 구나. 그 수많은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촌락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는 구나 참 영광스럽고 기쁜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한편 또 생각해 봅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겟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사치나 허영이 아니겠죠

작은 기록이지만 기쁘고 영광스러운 기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을 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는 그런 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보다시피 모든 병 모든 고난 질병이 고통과 슬픔이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요. d

욥기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 그 번뇌케 하는 아녀자들은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 죄 때문이다. 죄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수 없어

네 자식들 죽는 거 봐라.

네 재물들 다 없어지는 거 봐라 . 어떻게 이 것이 너의 죄가 아니고서야 있을수 있는 일이냐

빨리 고백해 자백해 라고 그렇게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얘기 하죠

꼭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과 괴로움 슬픔속을 통과케 하신 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욥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죄 때문에 징계만 있는 것은 아니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더 크게 하시고 두 번째 사울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고생시키셨지 않습니까

또다른 제 2의 사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도 굴리셨잖아요

도망자의 삶, 광야를 통과케 하는 삶 , 수염에 침을 흘리며미친척하는 그런 삶.

그걸 통과케 하면서 제 2의 사울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 괴로움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 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복음 9장에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이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지요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을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 복음 9장 한번 봐볼까요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이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죄때문이니까, 누구 죄때문입니까, 누구 죕니까 하고 끝까지 물

고 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이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말씀하시죠

우리가 뜻밖의 어려운 일이 닥치고 슬픔의 일 애통과 고통과 괴로움의 일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됨을 아시느니라.

천부께서 다 아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너희 천부께서도 다 아시느니라. 다 아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아신다면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 자식에게 때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그래도 주지않습니다

안줄때가 있어요 , 알고 있어도 안줄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워야 할것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야 할것이 있고 배워야 할것이 있을때 알면서도 주지 않는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물며 어줍짢은 부모노릇하는 저도 제 자식한테 알면서도 안주는 것이 있을텐데

하늘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목적과 이유 뜻이 없겠습니까

원하는 것 그것이 내게 이루어 지지 않을때 자꾸 더디 이루어 지게 될 때

때로는 하나님께 거절되는 것 같이 느껴질때,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분명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목이 11장 돌아가면, 역시 방금 그 내용과 연결되는, 되겠지만, 6절에보면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즉시 가지 않고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시간대로 일하지 않아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어요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

노예 인생, 노예로 사는 삶이 삶이 겠습니까?

노예로 사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였어요. 그들은 고통 속에서 부르 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구해 달라고

여러분 여러분 뱃속에서 난 자식이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 그죠,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지고 심장이 도려진다면 그 고통이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이 고통속에 울부짖었다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참으로 심각하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제 눈앞에서 제 아들의 심장이 도려지고 나일강에 던져진다면 견딜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날찌도 몰라요

아우슈비츠 그 수많은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

하나유대인들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

수용소 벽에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글귀가 적혀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디계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록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보다 그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이예요

그것이 우리를 전부 신앙의 정수로 끌어갈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냐 목메달려 죽어가는 그 소년의 죽음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기에 목매담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끔찍할수 있는지, 인간이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해석했답니다

우리는 물론 이스라엘이 왜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과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우리는 한가지 더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죽음 이면 속에는 인간의 가장 큰 잔인함과 잔옥함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어느 인간까지 될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게 마침 유대인 학살입니다

전범 재판소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 독일 장성들, 장교들 끌어다가 재판할 때 , 마지막 재판일지는 이렇게 마무리 됩니다

내가 이 독일 사람들과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우니.

그들이 밥을 먹고 양치질 하다가도총을 싸다 죽이는,, 그러고도 꿈쩍않고 밥을 먹었던.

그런데 그들과 내가 같은 인간이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도 무섭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거기까지 갈수 있다는 것도 유대인 대학살에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을 뿐이예요

전부 무서운 일입니다. 바로 그때에도 신앙을 가진 자는 신앙을 떠나지 않았

어요

우리 하나님 저렇게 총살당하고 있다.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 이런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세상 역사에 대해서 내시간 내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랄수는 있겠지만 바라는 그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대로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2틀을 더 유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행차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있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생각에서야 당장에 와서 당장 고쳐주기를 바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십년을 기다렸고 덧붙여서 모세가 준비될때까지 또 40년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왜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일하지 않았을까요

꼭 그 모세를 보낼때 아기 모세를 보내야되고, 광야에서 훈련시켜야 되고 팔십된 노인을 보내셔야 했을까요?

80살 노인이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작동할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같습니다. 당장 가시지 않고, 이틀을 유하시는것. 너희들의 시간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대로 움직일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되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때가 있다고 그랬죠.

시편 10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02편 13절입니다.

102편 13절,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옴이니이다

예 정한 기한에 따라서 그 정한 기한이 오니까,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지금이 그 때라 .

정한 기한이 있고,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겁니다.

하박국서 2장에 보면,, 이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한 때가 있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할것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되요 진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예레미아 애가에 나와있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기다림은 신앙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예요. 신앙을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자식도 기다려 줘야되요. 남편도 기다려 줘야되요. 아내도 기다려 줘야되고, 동료 형제자매도 기다려 줘야되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예요.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지금도 이세상을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시간이 기다림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면서 이 신앙을 통과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 26절, 함께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인간중에 어느누가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요

인간 역사상 수많은 선교자들을 선교에 장소로 이끌어 갈 때 가장 힘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말씀입니다

그 수많은 죽음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불속으로 바늘속으로 사지가 찢어지더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혀가 뽑힐지라도 그때에 라도 그들이 든든히 서게 했던 그말씀은 바로 이말씀이예요

지상 최대의 선언입니다

인류 최고 의 선언이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말씀이 있기에 혹 우리에게 죽음이 와도 우린 죽음속으로 걸어들어갈수 있어요 이말씀이 있기에

부활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활시킬것,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신것 이런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걸어갈수 있습니다.

그건 지상최고의 선언입니다

이말씀이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

이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면, 이 지상 최고의 확신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전 15:55말씀 인용)

사망이 쏘면 모할 겁니까. 난 부활할 껀데. 나는 다시 살텐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부활과 생명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부활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저 이따금씩 상담할 때 질문할테니까 얘기하라고 할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읽어줘요. 그리고 마지막,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하고 말합니다. 예 믿습니다. 저는 부활할겁니다. 저는 영원히 살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겁니다. 살아서도 영원히 다시 살겁니다

바로 이것이 있기에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갈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좀 읽어 보시고요,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 냄세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아라. 아닙니다. 냄세가 납니다

하나님 께서는 인간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그럽니다.

살리는 것은 내가 살릴테니까 너한테 살리라고 안했다

하지만 네가 해야될 일이 있으니 그건 돌을 옮기는 일이다.

홍해를 갈ㄹ라 내버리는 일은 내가 할테니까 홍해 앞까지 걸어오는 일은 네가해라

그거 네가 할수 있잔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은 내가 할테니까 너는 여리고를 돌아라.

하나님 RP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부지런히 성실히 층성되히 행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네가 할수없는 일은 내가 할것이라고하십니다

네가 홍해를 가를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래 , 나사로를 살릴래, 그것은 내 일이다

너는 네 일해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해

그러면 내가 일할 것이다.

여러분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나사로가 못나와요.

하나님과 사람의 협동이예요 우리가 그 작렬하는 태양 속에서 바로 어제까지 그 몸부림을 치면서 수양회장에서 뜨거운 빛을,, 열을 통과하는 이유가 몹니까

돌을 옮겨 놓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그런데도 우리는 얘기해요 냄세가 나나이다

이 사람은 안될꺼예요 썩은 냄세가 나요. 역겨운 썩어가는, 이세상이 가득차서 더 이상 말씀하나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럽고 추한 냄세가 나는 역겨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안됩니다. 냄세가 납니다. 더러운 냄세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때로는 우리가 막을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이사람 냄세나는 줄 안다 나흘된거 안다 하지만 돌 옮겨 놓으라, 살리는 것은 내가 할것이다 .

우리는 돌을 옮겨놓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살리고 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예요

그저 부지런히 성실히 충성되히 돌을 옮겨놓는 일을 우리는 할 뿐이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합니다.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린 부지런히 앉혀 놓아야 되요.

하나님의 맑씀이 살릴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하실일이다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이 너희를 살리는 영이되고 생명이 될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살릴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해야될 일은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비록 냄세나는 사람일지라도우리가 부지런히 돌을 옮겨놓는 그 일을 하도록 힘써야 될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입니다. 아 마지막은 아니네요,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예 조건입니다. 무슨 조건 입니까. 네가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네가 믿으면 이라는 조건이 있고 거기에 따른 종속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지 않냐.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성경이 무엇을 바라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에 나오죠. 로마서 1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저 믿음이 안생깁니다. 예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참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 믿는것을 의로 여기지 아니하냐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믿음입니다. 믿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탄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 안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영광을 못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뿐입니다.

솔직히 우리 생활속에 믿음없이 행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내 믿음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의역사를 우리가 믿지 않음로써 우리가 방해할수 있고 제한할수 있다는 사실

이또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참 이것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자 기쁨이 됩니다.

항상 아들인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명해져요

항상 아들인 내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거라는 거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말을 항상 들어주실것.

그리스도 기도속에 우리가 힌트를 얻고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아 아들인 그리스도 말씀을 항상 들으신다. ₩

그분의 또다른 아들들, 우리의 말슴을 또한 얼마나 항상 들으실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다는 것도 감사해야 될겁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만약에 공동묘지 가가지고 몇날 며칠 죽은지 오래된 사람의 무덤앞에서 누구야 나와라, 누구야 살아라, 누구야 무덤에서 일어나라 한다면 분명히 정신병자일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무덤 앞에서 누구야 나와라. 정신병자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거나. 둘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신병자거나 하나님이거나 가능성은 둘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십니다 나흘 된 무덤앞에서 누구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던 영혼을 불러내시는 , 나사로라는 이름만 빠지면 모두다 나왔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겠죠. 나와라 그럼 다 나옵니다

딱 한사람. 나사로야 나와라. 그건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분, 나사로를 불렀고 나사로는 나왔어요, 왜요, 주인이 나오라하니까 나와야줘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구원얻은 거랑 똑같아요.

살아서 나왔습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융니다

그러므로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진리를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풀어놓아 다니며 자유함을 만끽하고 살아야 되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생명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묶여있을 수 없어요 ,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 또한 그일 마저도 우리가 해야될일

하나님은 풀어놓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선언하게 하는, 자유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 죽은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일.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함으로써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일.

풀어놓아 다니게 할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은혜의 날, 구원의 날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돌을 옮겨 놓는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 사람의 편에서, 인간의 편에서 최선과 충성을 다해야 할거다생각이 듭니다

아직 수양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 치뤘어요

아직 세 번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또 3차수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전쟁이 끝난것이면 끝난게 아닙니다.

끝날 때 까지는 끝난게 아니예요

여러분들은 또 이곳의 , 생활의 터전 속에서 또한 열심히 사시겠지만 끝까지 , 끝날때까지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 돌을 옮겨놓는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일이 또 시작하게 될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들이 할수 있도록 우리는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야 될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담대하게 기쁘게 전할수 있는 우리 선생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구워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가운데 살게 하신것 정말 감사드립ㄴ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좌우로는 형제자매들 또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의 기회 주신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수 있는 귀한 하루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ㅅ소서

2차 하계 수양회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음의 정리 잘하고 또 5차 수양회가 끝날 때 까지 멀리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섯.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 수님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